"아이들 생명·안전 지키는 게 1번 임무"

전북교육청, 학생 생명지킴 전담반 운영키로

전문인력 활용 현장 밀착형 긴급지원체계 구축

천호성 전북특별자치교육감은 18일 전북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학생 생명지킴 전담반' 운영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18일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학생 생명지킴 전담반' 운영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 교육감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우리의 1번 임무로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교직원들의 관심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이 문제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주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학교에 계시는 분들,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내에서 보다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자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학생 생명지킴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긴급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오는 20일 1차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학생 생명 보호와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사진 오른쪽)이 18일 전북을 방문한 유청천 중국 길림성교육청 부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북교육청-中 길림성교육청 30년지기 우정으로 협력 강화

학생 교류 확대 · 국제교류수업 활성화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이 30년간 이어온 교육교류를 바탕으로 학생 교류 확대와 국제교류수업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청천 부청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길림성교육청 대표단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북을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은 길림성교육청 국제협력교류처장과 기초교육처 과장, 장춘외국어학교 교장, 길림성제2실험학교 부교장 등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방한 이틀째인 18일 전주사대부고와 고창북고등학교를 방문해 양국 학교 간 국제교류수업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학생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창북고등학교에서는 길림성 지역 학교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수업과 관련한 업무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구징치 주광주 중국총영사도 참석해 양 지역 간 교육교류와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학교 현장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전북교육청에서 천호성 교육감 주재로 공식 간담회와 환영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교육교류·협력 협약 연장과 전북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인 '전북유학'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비롯해 양국 학교 간 국제교류수업 활성화, 내년 상호 방문단에 전북 학생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전북교육청과 길림성교육청은 지난 1996년 첫 교육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30년 동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모두 21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과 초청이 이뤄졌으며, 협약도 6차례 확대·연장하면서 양 지역 간 교육교류의 폭을 넓혀왔다.

이번 방문은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교류수업을 내실화하는 등 미래지향적 교육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천호성 교육감은 "오랜 친구인 길림성교육청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과거의 성공적인 교류를 발판으로 이제는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세계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30년간 이어온 길림성교육청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청천 부청장은 "따뜻하고 성대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논의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양 지역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학생·교직원 안전 확보… 전북교육청, 2026 을지연습

비상대비 실전 체험

위기대응 역량 강화

2026 을지연습 첫 날인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서 천호성 교육감 주재 최초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중요문서 반출훈련, 공습 대비 대피훈련 등 실제 안보 상황을 반영한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교육행정기관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교육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천호성 교육감 주재 최초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중요문서 반출훈련, 공습 대비 대피훈련 등 실제 안보 상황을 반영한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특히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토의를 진행하고 상황별 해결책을 도출하는 등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을지연습 기간 도교육청 1층 현관에서는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비상대비 실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 민방위 대피소 찾기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직접 체험하며 위기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천호성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모든 훈련과 교육은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진행해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청렴한 내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전북교육청, 2026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 20편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의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로 표현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8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천으로 완성하는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모에는 총 234편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20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분야별 출품작은 청렴 쇼트폼 영상 14편, 청렴 표어(N행시) 181편, 청렴 이모티콘 17편, 청렴 포스터 22편 등이다.

부문별 최우수작에는 쇼트폼 영상 부문 '우리가 만드는 청렴!'(가평초병설유치원 김유리 교사 외 6명), N행시 부문 '청렴은 나로 시작! 청탁은 NO로 시작!'(유아교육진흥원 주무관 고지혜)이 선정됐다.

이모티콘 부문에서는 전주전라초등학교 이은지 교사의 '청렴 생활 바르게, 바르게!'가, 포스터 부문에서는 김제지평선중학교 김채나 학생의 '청렴을 비추는 학교, 미래를 비추는 전북교육!'이 각각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해 청렴이라는 주제를 각자의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청렴 콘텐츠 공모전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청렴을 다양한 시각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석하고 표현한 소통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의 청렴한 미래를 교육가족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과학교육원, 파라과이 한국학교에 과학교육용품 전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 해외 재외동포 학생들의 과학교육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원장 강진순)은 18일 파라과이한국학교에 과학교육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교육용품 전달식은 이날 오전 10시 과학교육원에서 강진순 원장과 양희영 파라과이한국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원 물품은 파라과이 현지 교실 여건을 고려해 구성됐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과학·수학 실험 키트를 비롯해 개인별 탐구 교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보드게임 등 학생 맞춤형 교육용품이 지원된다.

과학교육원은 이번 지원을 통해 해외 거주 한인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안전한 2학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전북교육청, 내달 4일까지 집중관리기간 운영

학교 현장 점검 · 컨설팅으로 대응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8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을 '2학기 감염병 예방 집중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 기간은 수두와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등 감염병이 학생들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개학기에 학교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각급 학교는 자체 방역 점검계획을 수립해 감염병 예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37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컨설팅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염병 예방·관리계획과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숙지 여부를 비롯해 방역물품 확보 및 정상 작동 여부,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이다.

또 매일 감염병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점검하며, 수두·HPV·인플루엔자 등 필수 및 권장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학교 내 공간과 공용물품에 대한 소독과 환기 등 위생관리 상태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학생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가정에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집중관리 기간을 통해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2학기 학사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영근 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은 "개학 전후는 학생들의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